

» 2015 계란자조금 사업 추진 내용

새로운 아이디어로 위기 넘어 기회로 만들고자 노력

2015년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안영기)는 계란산업에 닥친 불황은 위기를 기회를 살리자는 결연한 자세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연초부터 악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오판 언론 보도, 동물복지 악의적 보도, 산란계 사육수수는 7,200만수를 넘어서 8,000만수가 임박하단 전망이다. 위와 같은 많은 악재 속에서 닥친 불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는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한 한해였다.

1. 계란 콜레스테롤의 오해 바로 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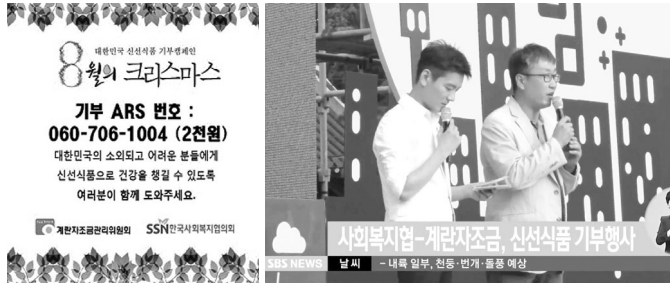
불황극복을 위해 먼저 계란 콜레스테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하여 끊임없이 TV, 라디오, 인터넷, SNS 등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미국과 일본의 콜레스테롤 기준 수치 소식을 전했다. 현재는 많은 소비자들이 계란 콜레스테롤과 혈액속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5년 요리 열풍이 불면서 계란은 요리의 부재료로 쓰였다. 그러나 계란은 부재료이며, 주재료이다. 계란요리가 메인메뉴가 되도록 노력했다. 기존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싶었다. 최근 유명세를 타고 있는 방송인 백종원씨가 삼시세끼를 계란요리를 시현했듯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계란요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8월의 크리스마스 계란기부 캠페인 전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기업의 기부 참여로 구성된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 푸드뱅크의 전체 기부물량은 1,440억원 수준(2013년 기준)으로 이 중 대부분은 쌀, 라면, 김치 등이며 저소득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과 빈곤층의 영양 섭취를 위한 계란과 같은 신선 단백질 식품은 유통기한의 민감함과 겨울철에 집중된 기부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일손부족으로 푸드뱅크 전체 기부물량의 0.01%인 약 1억 2천만원 정도의 물량만 제공되고 있다. 이를 계란으로만 환산했을 때, 대략 69만개(2만3천판 : 한 가정에 한 달 30개 제공 기준)로 이는 서울시 2개 지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가정에 계란 한판을 일 년에 단 1회만 제공할 수 있는 미미한 수준이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러한 기부현실 속에서 신선식품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겨울철에 집중된 기부가 아닌 여름철부터 신선식품 기부생활화를 목표로 '8월의 크리스마스' 기부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3. 옐로우후라이데이 지정 운영

어느 취업포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유무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40% 이상이 아침식사를 먹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침을 먹지 않는 직장인과 학생에게 아침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계란후라이를 권장하는 옐로우후라이데이를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매주 금요일(프라이데이)에 계란후라이를 먹고 건강도 지키자고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었다.



4. 계란을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홍보

계란은 뇌 개발에 도움이 되며, 더불어 인지·학습능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브레인푸드라는 교육을 어린이와 주부,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형마트 문화센터와 대학교에서 브레인



계란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실시하고 이 프로그램에는 항상 인기가 좋지만 예산적인 제한이 있어 회수를 늘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다.

5. 계란포털 사이트 eggro 적극 활용

계란의 모든 콘텐츠는 다 eggro에 있다. 계란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는 몇 가지가 되나요? 몇 천가지, 아니다. 소비자가 생각하는 가지 수 만큼 된다. 계란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계란은 먹거리에서 생활용품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포털이 eggro이다. 아울러 eggro는 2015년 유무선 최우수 웹사이트를 선정하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운영하는 어워드 콘텐츠 분야에 최우수 사이트로 평가받았다.



6. 계란페스티벌에서 계란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보다

2015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세계 유일의 계란페스티벌에서는 계란산업의 가치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종합무대였다. 계란자조금은 소비자에게 계란과 관련된 생산, 유통, 가공, 요리, 마케팅, 문화를 한눈에 볼 수 무대를 기획했고, 소비자는 그 위에서 향연을 즐겼다. 계란산업은 계란페스티벌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우리 국민에게 건강과 즐거움과 자부심을 만끽하는 동반자로 꼭 필요한 산업이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는 그것을 소비자에게 전달하였고, 계란페스티벌의 가치를 생산자도 알기를 원한다. 2015년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사업은 사막에서 꽃을 피우는 인내로 불황은 극복하고자 했고, 이러한 노력이 2016년 계란산업을 화려하게 발전시킬 것이며 2015년 12월 1일부터 거출금액이 80원으로 인상되어 예산이 증가되면서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양계**

